

가을철 한우사양관리

장선식 연구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시험장 농학박사 033-330-0609

폭염과 열대야가 교차하면서 유난히 더운 여름이 가고 있다. 9월에 접어들면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접어들어 가축의 대사기능에 무리가 올 수 있으므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양관리에 힘써야 한다.

더위가 한풀 꺾여 소들이 생활하기에 좋은 계절이긴 하지만 갑작스런 기후 변화는 소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9월 중순까지는 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직사광선을 차단해 주어 한 낮의 더위 스트레스 방지에 유념해야 한다.

-비육우 사양관리

일반적으로 고온기의 사료섭취량은 25℃이하일 때보다 10~35%까지 떨어지므로 사료의 빠른 소화로 제 1위의 발효열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소화 이용성이 높은 원료로 제조된 사료를 급여하되, 비육후기의 소에게 TDN함량이 74%이하의 사료를 급여하고 아침과 저녁에 주로 사료를 급여한다.

한우는 25℃가 넘어서면 더위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한창 사료섭취량이 왕성한 비육중기(17~22개월령)의 거세비육우는 더욱 더위 스트레스 저감을 위해 세심한 관리를 해야 한다.

더위가 가시고 비교적 선선해지면 소의 사료섭취량이 급격히 늘어나지만 사료를 잘 먹는 다고 무한정 주면 모두 불가식 체지방으로 축적되어 비싼 사료비용만 낭비하게 되므로 아무리 사료를 잘 먹는다 하더라도 농후사료를 기준으로 하루 10kg 이내로 제한하여 주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더위로 인한 사료섭취량 저하에 대비하여 자가 배합사료의 경우, 기호성이 높은 당밀이나 우지의 첨가량을 높이고 각 제품의 영양소 함량을 상향 조정하여 섭취량 감소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방지한다. 또한 여름철의 염분 섭취량 증가에 대비하여 사료 내 염분함량을 조절하고, 고온 스트레스의 경감을 위하여 비타민A, D, E 제제나 반추위 보호 비타민C 제제 등을 첨가, 보강해준다.

신선한 사료의 급여를 위해 사료는 10~15일 이내 급여할 만큼만 구입하고 사료조와 급수조의 청소를 자주 하며, 사료는 되도록 새벽이나 저녁 또는 밤

에, 조사료는 주로 저녁에 급여하되 사료섭취량을 높이기 위하여 번식우의 경우 배합사료와 조사료의 급여비율을 7:3으로 조절하며, 비육후기의 소는 반추기능 유지를 위해 1kg내외를 급여한다.

조사료는 짧게 썰어 급여하는 것이 좋은데, 특히 비육후기의 소는 볏짚을 5 cm 내외로 썰어주는 주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한편 자동사료 급이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고온과 동시에 습기가 많으면 사료저장 사일로나 오거관 안에서 뭉쳐지거나 부패하기 쉬우므로 수시로 점검한다.

- 번식우 사양관리

방목을 하거나 풀을 많이 급여하는 번식우에게는 소금을 자유롭게 섭취케 하며, 산야초나 청초를 베어 먹일 경우 그늘에서 하루정도 헤쳐 놓아 과도한 습기를 말린 다음 급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여름철 내내 갈대나 산야초를 베어 먹인 경우 기생충을 구제한다. 특히 방목우나 강변에 매어 놓은 소의 경우에 진드기가 많이 붙을 수 있으므로 사타구니나 항문 주위 등을 잘 살펴 떼어주도록 한다.

더위가 심할 경우 발정발견이 어렵고 수정을 실시해도 수태가 50%이하로 떨어지므로 요즘같이 아침저녁으로 시원해지면 발정관찰을 수시로 하여 수정을 실시하고, 첫 수정 이후 12~16시간 후에 한 번 더 수정하여 수태율을 높인다.

요즘 많은 농가가 원형곤포 조사료를 급여하는데 간혹 곰팡이가 슬어있을 경우 버리기 아까운 마음에 그대로 급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곰팡이가 핀 사료를 단기간은 소 반추위의 완충능력이 있어 상관없지만 장기간 먹일 경우 불임, 유산과 함께 임신우에서 자궁탈 또는 질탈 등의 번식기관 이상이 올수 있으며, 포유우에게 먹일 경우 송아지에게 설사가 쉽게 발생하고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곰팡이가 심한 조사료는 퇴비장으로 옮기는 것이 소의 건강에 유리하다.

- 송아지 사양관리

한낮에는 따뜻하고 밤과 새벽에는 쌀쌀해지는 일교차로 인해 호흡기 질병이 생기기 쉬우므로 온·습도, 환기 등 외부 환경 관리에 주의하도록 하는데, 특히 호흡기질병 발생위험이 높은 계절이며 발생률이 높은 연령은 출생 후 2~3개월령, 외부로부터 구입 후 2~3주째이므로 주의한다. 호흡기질병의 원인은 일교차, 장시간 수송, 사육장소 변경, 환기불량 및 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다. 특히 외부에서 구입할 경우, 파스튜렐라 호흡기 예방백신과 페니

실린계 항생제를 운송 일주일 전에 놔주는 것이 이상적이나 여의치 않다면 운송직후에라도 반드시 접종해줘야 한다.

호흡기질병의 초기 증상은 체온이 40~42℃로 올라가고, 눈물을 흘리며, 눈이 빨강게 충혈 되면서 눈곱이 낀다. 또 묽은 콧물을 흘리다가 증상이 심해지면 누렇게나 하얀 콧물을 흘린다. 더욱 심해지면 폐 속에 농포가 형성되고 이 농포가 터져 폐와 흉막이 유착되어, 마지막에는 입을 벌린 채 호흡하고 거품 섞인 침을 흘린다.

그러므로 송아지 질병예찰을 이른 아침에 실시하여 조금이라도 활력이 떨어지면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갓 태어난 송아지의 경우 초유를 충분히 먹이고, 송아지설사병 예방백신을 접종하며, 시장에서 구입한 송아지는 입식 초기에 이동 등에 따른 스트레스를 조기에 해소시킨다.

또한 송아지 방에는 톱밥 등을 깔아 주어 일교차에 의한 호흡기질병을 예방하도록 하고, 밤에는 축사 내의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지 않도록 송아지방의 윈치커튼을 손질해 보온을 해 준다. 환절기에는 저항력이 떨어지므로 호흡기질병 복합백신으로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그러나 예방에도 불구하고 질병에 걸렸을 경우 유효한 치료약제의 선택하여 발병에서 치료 개시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충분한 기간 동안(최소 3일 이상) 치료한다.

